

메이지시기 백호대 전사자를 둘러싼 기억의 재구성*

이세연 _ 비교역사문화연구소

목 차

- I. 머리말
- II. 1890년: 재현되는 사실, 균열하는 기억
- III. 러일전쟁과 표상으로서의 백호대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패자의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백호대 전사자를 둘러싼 텍스트 분석을 시도한 논고이다. 백호대 전사자를 둘러싼 기억의 지평에서 큰 분기점이 된 것은 1890년 백호대 기념비의 건립과 러일전쟁이었다. 1890년 이후 백호대 대원들의 최후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한결같지 않았다. 백호대 전사자들에 대한 기억은 재현이 거듭되면서 균열하는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러일전쟁에 즈음하여 무사도 담론이 부상하자, 백호대 전사자를 둘러싼 기억은 일정한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했다. 백호대 전사자는 무사도, 일본정신의 표상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이 같은 정형화의 움직임은 국가의 개입으로 인해 한층 가속화하였다. 백호대 전사자를 둘러싼 이야기는 국정교과서인 국어독본, 문부성 관리 하의 통속교육을 통해 규격화된 형태로 전국에 보급되어갔다.

* 본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8-361-A00005).

주제어

백호대, 기억, 재현, 재구성, 무사도

.....

I . 머리말

역사연구는 승자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기억되어야 할 역사로서 역사연구자들에게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사료는 주로 승자들이 남긴 말과 그들의 입장에서 재구성된 편찬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를 축으로 과거와 미래를 통괄적으로 조사(照射)한다는 역사학의 본령을 생각해 볼 때, 배제되고 지워진 역사에 충분히 주의할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敗者の日本史』 시리즈 20권(吉川弘文館, 2012~2015 간행)의 완간은 패자를 둘러싼 자장(磁場)으로부터 새로운 역사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바야흐로 본격화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역사상의 패자와 그 주변을 살펴보는 작업이 단순히 패자가 되지 않는 길, 승자가 되는 길을 짚어내기 위함은 아닐 것이다. 지역과 시대를 불문하고 승자와 패자는 늘 공존하기 마련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사실을 공통의 인식으로 전제한다면, 패자의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 우선 역사 속에 촛촛한 그물망을 하나 더 던져 넣는 작업에 다름 아니라는 점은 쉽게 양해되리라 생각한다. 패자의 역사를 통해 승자의 역사도 새롭게 조명될 수 있을 것이며, 인문학 보편의 화두인 마이너리티 문제를 반추해 보는 계기도 마련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근대일본의 패자인 아이즈(會津), 그리고 이를 표상하는 백호대(白虎隊) 전사자¹⁾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아이즈는 본래 도쿠가와 쇼군가문의 혈족으로 구성된 이른바 친번(親藩)의 하나로, 동북지방의 중핵을 이루었다. 서구열강과의 화친·통상 조약체결을 전후하여 일본사회의 여론이 사분오열하는 가운데, 아이즈는 좌막근왕(佐幕勤王)의 자세를 견지했으며, 이에 막부를 무너뜨리고 신정부(新政府)를 수립하고자 했던 사쓰마(薩摩), 조슈(長州) 등 여타 유력 번들과 대립했다. 양자는 1868년에 이르러 충돌했으며, 그해 9월 승패가 갈렸다.²⁾

메이지 신정부는 패자 아이즈를 일종의 본보기로 삼고자 폐번(廢藩) 조치했으며, 그에 대신하여 시모기타(下北) 반도의 황무지에 도나미번(斗南藩)을 창설하고 아이즈인들을 이곳으로 이주하도록 종용했다. 이에 도나미로 향하는 자, 내친 김에 홋카이도로 이주하는 자, 아이즈에 남는 자, 도쿄로 향하는 자 등, 아이즈인들은 제각각의 입장에 따라 이산했는데, 이 같은 사람의 이동은 1871년의 폐번치현(廢藩置縣) 조치를 거치며 한층 가속화했다. 말하자면 아이즈인들은 근대일본의 디아스포라였으며, 그 기억의 잔영은 현대까지도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

이처럼 근대일본의 깊게 패인 그림자, 아이즈를 표상하는 것이 백호대였다. 저명한 백호대 대원의 집단자결사건은 1868년 8월에 발생했다. 16~17세의 소년으로 구성된 백호대는 신분에 따라 사중(士中), 기합(寄合), 족경(足輕)의 3개 부대로 편성되었는데, 이 가운데 상급 무사의 자제로 구성된 백호 사중 2번대 37명은 8월 22일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들은

1) 본 논문에서는 전사자를 직접적인 전투행위에서 죽은 자뿐만 아니라, 전쟁의 여타 국면에서 희생된 자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집단 자결한 백호대 대원들에 대해 메이지 시대의 문헌들에서도 '戰死者', '戰歿者'와 같은 용어가 심심찮게 사용되었다.

2) 이하, 1872년의 태양력 도입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음력으로 표기함.

아이즈의 동북면 도노구치하라(戸ノ口原)에서 관군에 맞섰지만, 이윽고 패전하여 쓰루가성(鶴ヶ城)을 향해 퇴각하게 되었다. 이튿날 관군의 추격을 뿌리치며 이모리산(飯盛山)에 도착한 20명의 대원이 발견한 것은 화염에 휩싸인 쓰루가성이었다. 이들은 성이 함락된 것으로 오인하고 집단자결을 선택했다. 이들 가운데 이누마 사다키치(飯沼貞吉)가 우연히 구명되었으며, 이후 이누마의 진술을 토대로 백호대 대원의 집단자결에 얽힌 ‘미담’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아이즈의 비극과 백호대 대원의 집단자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왔다. 연구동향은 크게 세 갈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좌막(佐幕)과 근왕(勤王)이 양립가능하다는 인식³⁾에 근거하여 ‘사건의 재구성’을 시도한 일군의 연구들이 있다.⁴⁾ 아이즈와 백호대에 관한 연구의 상당 부분은 이 계열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후의 이른바 ‘관광사학’, 즉 아이즈의 비극과 백호대 대원의 집단자결사건을 아이즈의 관광자원으로 부각시켰던 향토사학도 이 계통에 속한다. ‘관광사학’의 근저에는 아이즈가 근현대일본사회에서 냉대되었다는 강렬한 피해자의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최근에 다나카 사토루(田中悟)가 비판했듯이,⁵⁾ ‘관광사학’에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군도(軍都)로 기능했던 아이즈의 기억과 이 시기에 발생한 전사자의 기억은 철저히 망각되었으

3) 좌막파의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를 참조. 田中彰, 『明治維新観の研究』, 北海道大学図書刊行会, 1987, 149~179쪽.

4) 관련연구가 방대한 관계로, 이하 몇 가지 주요 연구만 적기한다. 北原雅長, 『七年史』, 啓成社, 1904; 山川浩, 『京都守護職始末』, 沼沢七郎, 1911; 平石弁藏, 『会津戊辰戦争 増補白虎隊娘子軍高齢者之健闘』, 丸八商店出版部, 1928; 会津戊辰戦史編纂会編, 山川健次郎監修, 『会津戊辰戦史』, 会津戊辰戦史編纂会, 1938; 会津弔霊義会編, 『戊辰殉難追悼録』, 財団法人会津弔霊義会, 1978; 宮崎十三八, 『会津人の書く戊辰戦争』, 恒文社, 1993; 星亮一, 『会津戦争全史』, 平凡社, 2005.

5) 田中悟, 『会津という神話』, ミネルヴァ書房, 2010, 第5章.

며, 무진전쟁의 참상과 신화적 존재로서의 아이즈·백호대만이 강조될 뿐이었다.

둘째, 아이즈와 백호대를 둘러싼 개별사안에 대해 천착한 연구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서양인들에 의한 아이즈·백호대 현장을 살펴본 연구, 백호대 자인도(自刃圖)에 대한 연구, 근대의 백호대 텍스트에 대한 연구, 백호대를 위시한 아이즈 측 전사자들의 위령을 다룬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서양인들에 의한 현장을 살펴본 연구로는 1928년 로마 시로부터 증정된 백호대 기념비, 1935년 주일독일대사관의 문관으로부터 기증된 백호대 기념비에 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⁶⁾ 이들 연구와 관련해서는, 1920~1930년대의 일본에서 스스로 이탈리아통일을 자처했던 시모이 하루키치(下位春吉), 살아생전 아이즈와 백호대를 흠모하여 사후 이모리산에 안장되었던 독일인 리햐르트 하이제(Richard Heise) 등, 관련 인물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⁷⁾ 한편 백호대 자인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가와노베 야스나오(川延安直)의 일련의 연구가 주목된다.⁸⁾ 특히 백호대 현장의 동향에 따라 백호대 원의 복장과 자인도의 구도가 변화한다는 지적은 흥미롭다. 근대의 백호대 텍스트에 대해서는 고토 고지(後藤康二)가 면밀하게 분석한 바 있다.⁹⁾

6) 九頭見和夫, 「「ドイツ記念碑」と日新館の教育」, 『福島大学教育実践研究紀要』 13, 1988; 九頭見和夫, 「「イタリア記念碑」と「十五年戦争」下の会津の青少年教育」, 『福島大学教育実践研究紀要』 18, 1990; 中道寿一, 『ヒトラー・ユーゲントがやってきた』, 南窓社, 1991; 中道寿一, 『君はヒトラー・ユーゲントを見たか?』, 南窓社, 1999; 中道寿一, 「ヒトラー・ユーゲントと日本」, 『日独関係史 Ⅲ』, 東京大学出版会, 2008; 渡部昌二, 「白虎隊とファシズム」, 『歴史と地理教育』 687, 2005 등.

7) 藤岡寛己, 「下位春吉とイタリア=ファシズム-ダンヌンツィオ, ムッソリーニ, 日本」, 『福岡国際大学紀要』 25, 2011; 瀬野文教, 『リヒャルト・ハイゼ物語』, 中央公論新社, 2012 등.

8) 川延安直, 「初期白虎隊自刃図について」, 『福島県立博物館紀要』 22, 2008; 川延安直, 「白虎隊の画像学」, 『東北学』 24, 2010; 川延安直, 「新出の白虎隊自刃図について」, 『福島県立博物館紀要』 25, 2011 등.

9) 後藤康二, 「白虎隊テキストについての覚書 1」, 『会津大学文化研究センター研究年

고토는 특히 백호대 전사자가 소년들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이 적군(賊軍) 전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현창되게 된 경위를 설득력 있게 밝히고 있다. 끝으로, 이마이 아키히코(今井昭彦)는 적군 전사자의 매장과 위령에 관한 문헌사료와 금석문을 세밀하게 수집, 분석했다.¹⁰⁾ 방대하게 제시되는 자료가 종종 논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마이의 연구가 현재의 연구수준에서 가장 총괄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다. 이상 개별사안에 대한 연구의 일부는 첫 번째 연구동향과 연동하는 바도 있지만, 구체적인 역사상의 복원과 재구성의 물꼬를 트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셋째, 앞서 제시한 첫 번째 연구동향을 비판하며 아이즈·백호대 ‘신화’를 냉철하게 재검토하려는 일련의 연구들이 있다.¹¹⁾ 이를테면 ‘사건의 재재구성’을 주장하는 이들 연구는 근현대일본사회에서 아이즈인들이 냉대되고 극심한 차별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느냐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며, 나아가 아이즈와 조슈 지역민 간의 화해를 제언하기도 한다. 이런 연구동향의 도달점을 제시한 연구자는 앞서 언급한 다나카 사토루이다. 다나카는 아이즈·백호대 ‘신화’의 변용과정을 다섯 개 시기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다나카는 ‘신화’의 변용

報』8, 2001; 後藤康二, 「白虎隊テキストについての覚書 2」, 『会津大学文化研究センター研究年報』9, 2002.

- 10) 今井昭彦, 「会津少年白虎隊士の殉難とその埋葬」, 『常民文化』24, 1998; 「幕末における会津藩士の殉難とその埋葬」, 『人類にとって戦いとは 5 イデオロギーの文化装置』, 東洋書林, 2002; 「国家が祀らなかった戦死者」, 『新しい追悼施設は必要か』, ベリかん社, 2004; 「近代における賊軍戦死者の祭祀」, 『靈魂・慰霊・顕彰』, 錦正社, 2010; 『反政府軍戦没者の慰霊』, 御茶の水書房, 2013.
- 11) 牧野登, 『会津人が書けなかった会津戦争—会津への手紙—』, 歴史春秋社, 1997; 畑敬之助, 『戊辰怨念の深層—萩と会津, 誇り高く握手を—』, 歴史春秋社, 2002; 田中悟, 『会津という神話』. 다음 관련 논고도 아울러 참조할 것. Hiraku Shimoda, *Lost and Found: Recovering Regional Identity in Imperial Japan*, Cambridge(Massachusetts)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이세연, 「패자 아이즈의 적군 전사자 제사와 그 정치적 맥락들」, 『사림』57, 2016.

과정=아이즈의 아이덴티티의 변용과정)으로 파악하고, 그 근간에는 ‘정치’와 ‘시간’이라는 동인(動因)에 따라 변용되는 산 자와 죽은 자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아이즈·백호대 ‘신화’의 전체상을 보여주는 다나카의 연구는 향후 관련 연구의 출발점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다만, 종전 직후 아이즈·백호대 ‘신화’의 행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 국립공문서관을 위시한 각급 자료관의 사료가 거의 활용되지 않은 점 등, 몇 가지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는 곧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상의 연구동향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백호대 전사자를 둘러싼 메이지시대의 텍스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피에르 노라의 ‘기억의 터’ 프로젝트 이후 기억은 역사학 연구에서 회피할 수 없는 화두가 되었다.¹²⁾ ‘기억론적 전회’라 할 만한 동향 속에서 애초에 사실의 규명을 본령으로 삼았던 역사학의 유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역사가 어디까지나 과거와 현재의 부단한 대화 위에 존재한다는 점, 따라서 사실이 유동적인 진리체계 속에서 포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기억과 사실의 관계가 꼭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은 쉽게 양해되리라 생각한다. 전방위적 상상력을 추동하는 ‘기억론적 전회’는 오히려 역사학 전반을 한층 풍성하게 만드는 계기를 품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역사학에서 기억이 차지하는 위상을 정초하기 위해서는 이론연구와 더불어 촘촘한 경험연구가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최근 홀로코스트 연구에서 다방향 기억(Multidirectional Memory)과 같은 가설들이 제시되고는 있지만,¹³⁾ 다양한 지역과 시대를

12) 다음 논고들을 참조. 피에르 노라 외 지음, 김인중 외 옮김, 『기억의 장소 1~5』, 나남, 2010; 정지영·이타카키 류타·이와사키 미노루 편, 『동아시아 기억의 장』, 삼인, 2015.

13) Michael Rothberg, *Multidirectional memory: remembering the Holocaust in the age of*

아우르는 보편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역사적 사실과 기억에 관한 보편적인 전망을 지향하는 사례 연구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위에서 거론한 가와노베 야스노부, 고토 고지, 다나카 사토루의 연구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제각각 분절적으로 진행된 감이 없지 않다. 또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분석되지 않은 텍스트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지평 위에서 기존의 분석내용과 새로운 분석내용을 종합하고 체계화하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해 아이즈의 전쟁과 기억이라는 통시대적인 상위 과제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1890년: 재현되는 사실, 균열하는 기억

1868년 8월 23일 이모리산에서 집단 자결한 백호대 대원들의 사체는 쓰루가성 함락 이후에도 한동안 방치되었다.¹⁴⁾ 관군이 적군 전사자의 매장을 엄격히 금했기 때문이다. 관군은 살아남은 패자들에 대한 일종의 전 시효과를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살벌한 전후의 분위기 속에서도 이들 사체를 수습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졌다. 백호대 대원들의 사체 일부는 이미 1868년 8월 말 경 다키자와(滝沢) 촌민에 의해 묘코쿠지(妙国寺)에 안장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관군에게 발각되어 묘혈은 파헤쳐지

decolonization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14) 이하, 백호대 전사자의 매장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를 참조하였다. 今井昭彦, 「会津少年白虎隊士の殉難とその埋葬」, 『常民文化』 24, 1998.

고 사체는 재차 유기되었다. 이후 각고의 노력 끝에 백호대 대원들의 사체를 현재의 이모리산 묘역에 안장한 것은 마치노(町野主水)였다. 쓰루가 성 함락 이후 전후처리업무를 담당하게 된 아이즈 번사 마치노는 관군 측과 협상을 거듭하여 백호대 대원들의 사체 처리를 인가받았다. 다만, 매장은 목인이라는 형태를 띠어 안장 작업은 한밤중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처럼 매장조차 쉽게 용인되지 않았던 백호대 전사자이지만, 집단 자결의 ‘미담’은 의외로 이른 시기부터 퍼져나갔다. 1869년 4월 28일자 『天理可樂佈』 3호의 신문기사에는 인데 신조(印出新藏)의 아내 하쓰(ハツ)가 이누마 사다키치를 발견하여 구명한 경위, 사다키치의 진술, 세평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사다키치의 진술과 세평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다키자와 부근 산간에서 적과 마주쳐 전투를 벌였지만 아군은 뿔뿔이 흩어져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랐다. 적은 이미 빠르게 전진하여 (쓰루가)성에 임박했다. 화염이 하늘을 뒤덮었고 누구 하나 와서 돕는 자도 보이지 않았던 터라, 도저히 대적할 수 없다고 여겨져 각자 결심을 했다. 이렇게 된 이상, 적의 손에 사로잡히는 것도 아깝다고 서로 상의하고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 성의 모습이 보이는 곳을 골라 각각 멀리 절을 올리고 자결했다. 나 역시 줄곧 목을 찢었지만 관통하지 않아 몸에 칼을 꽂은 채로 두 손으로 나무뿌리를 잡아당기고 몸으로 누르니 인사불성이 되었다. 이렇게 도움을 받아 되살아나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 이처럼 어리고 연약한 몸으로 깨끗하게 결심한 것을 보면, 성장한 후에는 영재가 되었을 터인데 아쉽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고 한다.¹⁵⁾

1931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누마는 본인 명의의 회고록을 남기지

15) 『日本初期新聞全集: 編年複製版 22』, ぺりかん社, 1990 수록(後藤康二, 「白虎隊テキストについての覚書 1」, 56쪽에서 재인용).

않았다. 아마도 전우들과 운명을 함께 하지 못했다는 회한을 한평생 품고 살아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의 증언을 바탕으로 편찬되었다고 주장하는 서적들은 이후 종종 등장하지만, 육성을 직접 채록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은 위의 기사가 유일하다는 점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이누마의 육성은 패전에서 자결에 이르는 상황을 간결하게 전해준다. 이누마는 백호대 대원들이 고립무원의 절박한 상황 하에서 자결했음을 밝히고 있다. 뒤이은 문장에서는 ‘어리고 연약한 몸과 자결 행위 사이의 낙차가 사건 직후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시선은 이후 백호대 현창의 담론에서 주선율을 이룬다.

이처럼 신문지상에 등장한 백호대 전사자는 1870년대 이후 일반서적에도 등장하기 시작한다. 빠른 사례로는 『統国史畧後編』¹⁶⁾을 들 수 있다. 백호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이 열다섯에서 열일곱에 이름’이라는 주석이 붙어 있다. 이어 사찬 역사교과서인 『小学国史紀事本末』¹⁷⁾에는 백호대 전사자가 소년이라는 점이 명기된 후 그들의 할복자살에 대해 “사람들이 모두 이를 슬퍼했다”는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백호대 전사자의 ‘어리고 연약한 몸’이 일찍부터 주목받고 있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백호대 전사자의 최후를 그린 자인도(自刃圖)는 일찍이 1869년부터 진혼의 맥락에서 제작되었는데,¹⁸⁾ 1880년대에 접어들면 삽화로도 등장하기 시작한다. 예컨대, 아이즈번 시의(侍医) 출신인 마시마 교우(馬嶋杏雨)¹⁹⁾의 ‘觀会津白虎隊自刃之図有感’을 실은 『評纂新体詩選』²⁰⁾의 권두

16) 小笠原勝修, 『統国史畧後編』 卷之五, 柏悦堂, 1875.

17) 椿時中, 『小学国史紀事本末』, 龍雲堂, 1882. 이 서적과 상기 『統国史畧後編』에 대해서는 고토가 소개한 바 있다(後藤康二, 「白虎隊テキストについての覚書」, 56~60쪽).

18) 川延安直, 「初期白虎隊自刃図について」를 참조.

19) 마시마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를 참조. 阿部綾子, 「研究ノート 馬嶋瑞園の基礎的研究」, 『福島県立博物館紀要』 24, 2010.

20) 竹内隆信編, 『評纂新体詩選』, 春陽堂, 1886. 마시마는 ‘젓비린내 나는’ 소년들이

에는 백호대 대원 한 명이 자결하고 있는 숲속의 동료들을 뒤돌아보는 자
인도가 삽입되어 있다(부록 참조).

이처럼 1870~1880년대에 걸쳐 백호대 전사자의 존재가 신문, 역사서,
시문집, 그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점차 세상에 알려지는 가운데 1889
년에는 백호대 기념비의 건립이 추진되었다. 기념비 건립운동은 상당한
관심을 불러 모았던 것 같다. 예컨대, 당대 최고의 출판사였던 박문관(博
文館)의 쓰보야 겐시로(坪谷善四郎)는 이 사업을 통해 백호대 전사자는 잊
히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²¹⁾ 기념비는 1890년에 완성되었다.

이 기념비의 건립을 전후하여 백호대 전사자를 둘러싼 담론은 양과
질 모두 비약적인 발전을 보인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백호대 전사자 전
기의 출현이다. 1890년 『繪入白虎隊勇士列伝』²²⁾이 출간되는데, 저자인 후
쿠시마현 평민 ‘二瓶由民’은 책의 앞머리에서 “본년 유지 여러 사람이 다
키자와 이모리산의 백호대 기념비 건설 및 사자에당(榮螺堂) 수복, 백호
초상 설치 등의 계획이 있어”(서언 1~2면)라며 저서 출간 당시 아이즈 지
역사회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 또 저자는 “당시 목격한 것과 전해들은
것, 또 학식 있는 자에게 질의하여 실제 있었던 일을 수집하여 마침내 이
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서언 2면)라고 하여 고중에 힘을 기울였음을
밝히고 있다.

아이즈 현지의 증언 등을 토대로 한 만큼 전사자 개개인에 대한 서술

‘의’를 알고 ‘국은(国恩)’에 보답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을 당당한 ‘대남자’,
‘충신’으로 자리매김했다.

21) 坪谷善四郎, 「白虎隊の為に記念碑を樹るの挙を聞く」, 『日本之少年』 2(13), 1890, 2
쪽. 백호대 기념비 건립이 추진되던 1889년에는 대사령이 반포되어 일찍이 아이
즈번의 반란 책임자로 처형되었던 가야노 곤베(萱野権兵衛)의 죄명이 삭제되었
으며, 아이즈 사담회가 발족되어 아이즈인에 의한 역사 재조명 작업이 본격화하
기도 했다(今井昭彦, 『反政府軍戦没者の慰霊』, 168쪽 참조). 백호대 기념비 건립
은 이런 움직임들과 맞물려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22) 二瓶由民, 『繪入白虎隊勇士列伝』, 齋藤八四郎, 1890.

은 비교적 상세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집단자결의 장면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모두 말하기를 “성은 이미 함락되었다. 이는 곧 충신이 사직에 목숨을 바칠 때이다”라 하고, 개울로 내려가 물을 떠 몸을 정결히 한 후 멀리 성을 향해 절을 하고 각각 칼을 쥐고 자결했다. 백호대 가운데 니시카와 쇼타로(西川勝太郎)는 차분하고 도량이 있다 하여 많은 이들로부터 추천받아 목을 쳐주는 역할을 맡았다. 임무가 끝난 뒤 스스로 총으로 자결했다고 한다.(서언 3-4면)

위 인용문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백호대 전사자의 한 사람인 니시카와 쇼타로가 동료들의 자결을 도왔다는 구절이다. 전기의 저자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인지하게 되었던 것일까? 유일한 생존자인 이누마를 취재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테지만, 이 전기의 본문에는 실은 “백호용사 가운데 이누마 사다키치는 뒤늦게 당도하여 모두 자살한 것을 보고는 당황하여 칼을 쥐고 스스로 목을 찢러 앞으로 쓰러졌다.”(附記, 본문 12면)라는 구절이 보인다. 최후의 장면에 대한 저자의 서술이 또 다른 취재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창작의 소산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니시카와를 중심에 내세운 묘사는 아이즈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²³⁾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아이즈인이 역시 철저한 고증을 표방하며 기록한 백호대의 사적에 니시카와의 활약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²⁴⁾ 요컨대, 아이

23) 福嶋県 酒井長吾, 「紀白虎隊事」, 『穎才新誌』 1024, 1897; 佐瀬一郎編, 『飯盛山案内』, 万翠堂, 1908, 39쪽 참조. 참고로 덧붙이자면, 위에서 언급한 『繪入白虎隊勇士列伝』의 서지사항에는 ‘石版工’으로 후쿠시마 평민 ‘佐瀬一郎’가 보이는데, 이 인물은 『飯盛山案内』의 편자와 동일인물인 것으로 짐작된다.

24) 中村謙, 『白虎隊事蹟』, 河井源蔵, 1894. 고증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보

즈 현지에서조차 최후의 장면에 대한 기억은 혼선을 빚고 있었다. 사실의 재현은 기억의 균열을 초래하고 있었다.

기억의 균열은 자결 직전에 백호대 대원들이 떠올렸다는 고사들에서도 발견된다. 고사 역시 1890년 무렵부터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은 『史記』 越王勾踐世家의 “주군이 치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는 것이다(主辱臣死)”라는 구절이었다.²⁵⁾ 이것은 정치일선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범려가 자신의 주군인 월왕 구천에게 회계산에서의 굴욕적인 과거를 환기하며 건넨 말의 일부이다. 집단자결을 앞둔 백호대 대원들이 실제로 이 구절을 읊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이 구절은 연기에 휩싸인 쓰루가성을 바라보며 주군의 몰락을 감지하고 죽음을 결심했던 백호대 대원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데 손색이 없다.

그런데 최후의 장면에서 백호대 대원들이 떠올렸다고 기억된 것은 범려의 고사만이 아니었다. 다음과 같이 저명한 고사들이 망라된 듯한 서술도 눈에 띈다.

우리가 모두 결의하여 … 혹은 남공(楠公) 칠생(七生)의 구를 읊조리는 자가 있고 혹은 장순(張巡) 전사(戰死)의 장을 암송하는 자도 있고 혹은 천상(天祥) 정기(正氣)의 노래를 부르는 자가 있고 혹은 항우(項羽) 해하(垓下)의 곡을 읊는 자도 있었다. … “주군이 치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는 것이다. 어찌 하찮은 몸을 아껴 군부(君父)를 더럽히고 치욕을 후

인다. “본서의 실제 이력은 일일이 순난지사의 부모, 형제와 접촉하여 얻은 것이며, 실지 전투에 관한 기록은 이누마군의 구술에 근거하여 편집한 것이다. 본서 석판화의 현장 및 용모 착의의 모양 등은 구 번사 고(故) 인데(印出)의 노모 및 이누마군의 지시, 유족의 구술에 의한 것으로, 책상머리에 앉아 상상하여 모사한 것이 아니다.”(2쪽)

- 25) 다음의 자료들을 참조할 것. 越前 廣阪生, 「吊白虎隊少年文」, 『穎才新誌』 691, 1890; 千葉県 瀬能寛三, 「題白虎隊戰死図」, 『穎才新誌』 836, 1893; 中村謙, 『白虎隊事蹟』, 河井源蔵, 1894, 76쪽; 川崎三郎, 『戊辰戰史』 卷10, 博文館, 1894, 80쪽; 池内儀八, 『会津史』 卷九, 池内清治郎, 1897, 16쪽; 八木富次, 「飯盛山白虎隊墓」, 『仁山智水帖』, 光村写真部, 1902; 指月庵, 『白虎隊土間瀬源七郎伝』, 甲斐山書店, 1904, 13쪽.

세에 남기겠는가?²⁶⁾

위 인용문에 따르면, 자결을 앞둔 백호대 대원들은 제각각 평소에 애호하던 고사를 떠올렸던 것 같다. 누군가 남조(南朝)의 충신 구스노키 마사시게(楠木正成)의 유언²⁷⁾을 떠올리자, 누군가는 중국의 대표적인 충신인 장순, 문천상의 고사²⁸⁾를 떠올렸고, 또 누군가는 사면초가에 빠진 항우의 시구²⁹⁾를 떠올렸다는 것이다. 범려의 고사도 빠지지 않았다.

저자는 유일한 생존자인 이누마를 취재했다고 거듭 밝히며 기술의 신빙성을 강조했지만,³⁰⁾ 위의 인용문에 보이는 모든 고사들이 당시의 사회일반에서 꾸준히 기억되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관적(官賊)의 구도를 연상케 하는 마사시게의 고사, 백호대 대원들의 처지와 잘 겹쳐지지 않는 항우의 고사는 적어도 메이지 시기에는 이후 발견되지 않는다.

위의 고사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기억된 것은 예의 범려의 고사, 그리고 남송의 충신 문천상의 고사였다. 문천상의 경우 20세기에 접어들면 정기가(正氣歌)뿐만 아니라 과령정양(過零丁洋)의 시구가 새로 부상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는 마지막 문구, 즉 “사람이 태어나 예부터 누군들 죽지

26) 中村謙, 『白虎隊事蹟』, 16·76쪽.

27) 『太平記』 卷16에 따르면, 마사시게는 “일곱 번 다시 태어나 조적(朝敵)을 멸망시키고자 한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이 문구는 근대일본사회에서 칠생보국(七生報國)의 담론으로 정형화되었다.

28) 두 사람의 고사는 특히 아사미 게이사이(淺見綱齋)가 편집한 『靖獻遺言』(중국의 대표적인 충신의 사적을 모은 책으로, 근왕지사를 중심으로 근세 후기의 일본사회에서 널리 애독되었음)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장순의 고사는 이 책의 제4편 후반부에 등장한다. 그에 따르면 장순은 멀리 황제를 향해 절을 올린 후 “신 장순 힘이 다했습니다. 이미 살아서 폐하의 흥은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죽어서 여귀가 되어 적을 죽이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문천상의 고사는 제5편에 실려 있다. 정기가는 원 조정의 회유를 거부한 문천상이 옥중에서 지은 시로 알려져 있다.

29) 해하에서 유방의 군대에 포위된 항우가 지은 시이다.

30) 中村謙, 『白虎隊事蹟』, 2·21쪽.

않았겠는가. 변치 않는 정성스런 마음을 남겨 역사를 비추리라(人生自古誰無死, 留取丹心照汗青).”라는 문구가 백호대 대원의 입을 통해 거듭 확인된다.³¹⁾ 최후의 장면을 둘러싼 기억의 균열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았던 것이다.

Ⅲ. 러일전쟁과 표상으로서의 백호대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기억의 균열은 20세기 접어들어서도 눈에 띈다. 고사에 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데, 그와는 별도로 보다 근본적인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 출발점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앞선 이야기들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다소 상세히 인용해 두고자 한다.

“아! 성은 바야흐로 함락되려 하고 있다. 우리들은 적진에 뛰어들고자 해도 몸이 지쳐 움직이기 어렵다. 죽음으로써 주군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이 때이다. 일동 깨끗이 이 산 위에서 자살하자”라며 열여섯 명은 멀리 성을 향해 절하고 각각 최후의 준비를 했다. … 시노다 기사부로(篠田儀三郎)라 하여 17세의 미소년이 목소리도 낭랑하게 문천상의 정기 노래를 읊었다. 부상에 괴로워하고 숨 쉬는 것도 고통스러워하던 이시다 와스케(石田和助) 16세 소년은 시노다의 읊조리는 목소리를 듣고 씩 웃으며 자신도 최후의 노랫소리를 내고자 하여, “사람이 태어나 예부터 누구들 죽지 않았겠는가? 변치 않는 정성스런 마음을 남겨 역사를 비추리라”라고 문정상(文正祥)의 영정상(零丁祥) 시

31) 村井弦齋·福良竹亭, 『第三百十九 白虎隊の壯烈 十九少年自殺の事』, 『絵入通俗西郷隆盛詳伝』 第參編, 春陽堂, 1903, 65쪽; 佐竹操編, 『薩摩琵琶四絃界(後)』, 岡本偉業館, 1909, 93쪽; 高橋淡水, 『壯絶悲絶 白虎隊』, 磯部甲陽堂, 1909, 54쪽.

(원문대로임=인용자)를 다 읊고는 “나는 부상이 고통스런 터라 먼저 실례한다”며 옷통을 벗고 칼을 배에 찌른 후 멋지게 당기고 돌려 앞으로 쓰러졌다. 이것을 보고 시노다 기타로 역시 뒤처지지 않겠다는 듯 지팡이로 삼고 있던 칼을 거꾸로 쥐고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하야시 야소지(林八十治)라는 16세 소년은 같은 나이의 나가세 유지(永瀬雄治)와 친구 사이였는데 죽는다면 같이 죽자고 약속했던 일을 생각하여 서로 칼을 찔러 죽고자 했다. 하야시는 칼을 쥐어 나가세의 가슴을 겨누고 나가세는 하야시의 목에 칼을 대고는 서로 일시에 신호를 하여 찔렀다. 그런데 하야시가 곧장 죽지 않았다. 그 괴로움에 옆 사람을 향해 목을 쳐달라 부탁하니 노무라 고마시로(野村駒四郎)라 하여 17세 소년이 하야시의 목을 찔으며, 자신도 배를 갈라 죽었다.³²⁾

위 인용문은 앞서 살펴본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플롯을 지니고 있다. 전체적으로 최후의 장면이 보다 처절하고 드라마틱하게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니시카와 쇼타로의 활약상은 온데간데없고, 그에 대신하여 시노다 기사부로, 이시다 와스케, 하야시 야소지, 나가세 유지, 노무라 고마시로가 주요 인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 전국적인 규모로 퍼져나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동일한 플롯의 이야기가 메이지 말기에도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기 때문이다.³³⁾ 보다 세밀한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아이즈 지역사회에서 통용된 기억과 기타 지역에서 통용된 기억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사실이 재현되면서 기억이 균열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사실이 재현되면서 기억이 정형화하는 측면은 존재하지

32) 村井弦齋·福良竹亭, 「第三百三十九 白虎隊の壯烈 十九少年自殺の事」, 65-66쪽.

33) 佐竹操編, 『薩摩琵琶四絃界(後)』, 岡本偉業館, 1909, 93-94쪽; 高橋淡水, 『壯絶悲絶 白虎隊』, 磯部甲陽堂, 1909, 54-55쪽; 坂本忠一郎, 『西郷隆盛伝 第3編 江戸之巻』, 精華堂, 1909, 380-381쪽.

않았던 것일까?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확실히 그런 측면이 존재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다름 아닌 러일전쟁이었다.

1890년 이후 백호대 전사자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크게 부각된 것은 모범으로서의 백호대 전사자라는 담론이었다. 주군에 대한 절대충성을 체현하고자 깨끗이 죽은 어린 소년들의 에피소드는 특히 소 국민들이 따라야 할 모범사례로 인식되었다. 몇 가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 가지 염려되는 바는 해외 여러 나라가 여러 가지 속임수를 써가며 걸핏하면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일이다. 훗날 만약 무례하게 우리에게 그러하다면 즉 우리 향리의 자제인 자들은 그들의 앞보는 바를 잘 막고 공격을 막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침으로써 제사(諸士)의 의열을 이어야 할 것이다.³⁴⁾

이 백호대의 이야기를 들으신 제군은 만일 일본국에 큰 일이 벌어졌을 때 백호대의 용기에 뒤지지 않는 눈부신 활동을 하시고 일본국의 존귀함과 영화로움을 지키는 일에 몸을 내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³⁵⁾

세상의 소년들이여, 간절히 바라건대 국가에 큰 일이 있어났을 때에는 열여섯 사람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아 충성하고 의를 중시하여 외이(外夷)로 하여금 혀를 내두르게 하라.³⁶⁾

첫 번째 인용문은 1890년에 건립된 백호대 기념비에 새겨진 문장의 일부이다. 찬자는 ‘향리의 자제’들에게 백호대 전사자의 ‘의열’을 이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같은 요구는 일본사회 전반의 소년들에 대한 것으로

34) 「白虎隊碑文」.

35) 虎林勇, 「白虎隊の勇氣」, 『家庭教育 小学生徒演說』, 花井卯助, 1891, 7-8쪽.

36) 「白虎隊」, 『少國民』 10(3), 1898.

쉽게 전환되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인용문의 대상이 당대의 소년들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이 같은 모범 담론은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내가 이 전기를 기술하여 우리나라 무사에게 장렬한 기개와 절조가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 것은 황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동몽(童蒙)에게 의용봉공의 정신을 기르게 함으로써, 설령 매서운 독수리가 날개를 펴 계림이 동요하더라도 우리 일본을 영원히 태산과 같이 안정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뿐이다.³⁷⁾

위 인용문은 러일전쟁 개전에 즈음하여 출간된 『白虎隊士間瀬源七郎伝』의 머리말에 실린 저자의 변이다. ‘매서운 독수리’가 러시아를, ‘계림’이 한반도를 의미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저자는 대외적인 위기상황에서 소년들로 하여금 ‘무사’로서의 자각을 지니게 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무사도 담론이 크게 부각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³⁸⁾ 러시아라는 거대한 서구 제국과 맞서는 과정에서 무사도는 승전을 초래할 수 있는 일본의 고유한 정신, 윤리의식으로 각광받았으며, 전후에도 일본이 선전한 요인으로 손꼽혔다. 예컨대, 무사도의 모범 사례를 모은 한 서적의 서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사도(士道)가 굳세고 용맹하여 전 세계, 만국에서 탁월한 것은 오늘날 심료(瀋遼)의 전쟁 관련 사적에 대해 이를 보더라도 또한 일목요연하고 명백할 것이다. 생각건대 이른바 사도는 진실로 우리나라의 정수로 …”³⁹⁾와 같은 문장을 발견할 수

37) 指月庵, 『白虎隊士間瀬源七郎伝』, 머리말.

38) 佐伯真一, 『戦場の精神史: 武士道という幻影』, NHK出版, 2004, 4장 참조.

39) 久保天隨編, 『古今武士道史譚』, 育成会, 1905, 서문.

있다.

이 같은 당대의 사조에 비취볼 때, 백호대 전사자가 무사도 담론과 결합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것이다. 실제로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출간된 백호대 관련 서적들을 일별해 보면 ‘무사’를 키워드로 삼은 동어반복적인 문장들과 곧잘 마주친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같은 장렬함, 이 같은 비참함은 동서고금의 역사에 유례가 없다. 생각건대 신주(神州) 정령의 기가 뭉쳐 일본정신(大和魂)이 될 때 번득하여 광채를 떨친 것인가? 다른 나라 사람은 이것을 보고 우리 일본 무사의 정신을 짐작할 터, 오늘날의 소년 자제 역시 이를 거울삼아 스스로 뜻을 북돋아야 할 것이다.⁴⁰⁾

그들은 아마도 민족의 정화이다. 무문의 꽃이다. 또 현대 소국민의 모범이다.⁴¹⁾

하루아침에 이모리산의 이슬로 사라졌어도 그 방명을 후세의 역사에 남기고 영원히 무사도의 모범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⁴²⁾

이처럼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백호대 전사자가 무사도 담론과 강고하게 결합되자, 이에 연동하여 또 한 가지 정형화의 패턴이 자리잡게 된다. 그것은 삽화에서 발견된다.

앞서 1880년대에 이르러 백호대 대원을 묘사한 삽화가 등장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1890년대까지는 두 가지 묘사가 교차하는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백호대 대원들의 복장이 두 갈래로 갈렸다.

삽화의 내역은 <부록>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 우선 ②④를 보면, 백호대 대원의 복장이 일부 양복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반해 ①③⑤에

40) 村井弦齋·福良竹亭, 「第三百三十九 白虎隊の壯烈 十九少年自殺の事」, 67쪽.

41) 井野辺茂雄編, 『七十偉人』, 武田文永堂·中島辰文館, 1909, 237쪽.

42) 坂本忠一郎, 『西郷隆盛伝 第3編 江戸之巻』, 精華堂, 1909, 382쪽.

서 백호대 대원들은 일본 고유의 전통 복장을 걸쳤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②④가 아이즈인들이 출간한 서적의 삽화라는 사실이다. 그들이 치밀한 고증작업을 표방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역사적 사실로서는 ②④의 묘사가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①③⑤는 해당 작가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결과, 혹은 모종의 의도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것이다. 백호대 전사자를 둘러싼 기억의 지형도가 지역 간 편차를 지닌 울퉁불퉁한 것이었다는 점은 이처럼 삽화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이다.⁴³⁾

그런데 1900년대로 넘어가면 백호대 대원의 복장은 ⑥⑦⑧⑨에서 확인되듯이 전통 복장으로 통일된다. 이 역시 ①③⑤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⑦의 본문에 백호대 대원의 복장과 관련하여 ‘감색 나사(羅紗) 망토’(10쪽), ‘게벨총’(10쪽)과 같은 문구가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전통 복장의 삽화는 그렇게 기억하는 게 타당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백호대 대원은 왜 전통 복장으로 묘사되어야 했을까? 그 같은 묘사는 역시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부각된 무사도 담론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재차 확인하자면, 당시 무사도는 일본 고유의 정신, 윤리의식으로 자리매김되었고, 백호대 전사자는 그런 무사도를 체현한 대표적인 사례로 추앙되었다. ‘무문의 꽃’, ‘무사도의 모범’인 백호대 전사자에게 ‘감색 나사 망토’보다 전통 복장이 어울린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백호대 대원들의 무장이 오로지 칼이었던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43) 이는 회화작품으로서의 자인도에 대한 가와노베의 연구결과와 부합한다. 가와노베에 따르면, 메이지 초기 아이즈에서 생산된 자인도에서 백호대 대원들은 양복차림에 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가와노베에 따르면, 전통복장의 이미지는 특히 와타나베 분자부로(渡辺文三郎)의 석판화를 계기로 유포되었다고 하는데, 와타나베는 오카야마현 출신 화가였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川延安直, 「白虎隊の圖像学」; 同, 「新出の白虎隊自刃図について」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백호대 전사자를 둘러싼 기억들은 일정한 주물틀 속으로 밀려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같은 과정은 국가에 의해 가속화하였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1904년부터 사용된 국어독본(고등소학교용) 국정교과서에 다음의 운문 ‘백호대’가 실렸다는 사실이다.

짜락눈처럼 쏟아져 내리는 적의 탄환을 받으며
목숨을 먼지처럼 가벼이 여기며 싸운 서른일곱 용감한 소년
이들이야말로 아이즈의 낙성에 그 이름을 떨친 백호대
아군은 적고 적군은 많고 날은 완전히 저물어 비는 어둡게 내리네
치솟는 용기는 꺾이지 않지만 지친 몸을 어찌 할 텐가
쓰러지는 시체 흐르는 핏물 의지하던 총탄도 떨어졌구나
남은 것은 불과 열여섯 헌 번 뒤로 돌아가
주군의 최후를 보았으면 하고 이모리산에 기어올라
바라보니 이미 성은 함락되고 화염은 하늘을 그을렸네
신자의 임무는 여기까지다 이제 깨끗이 죽자 라며
머리를 나란히 하고 기꺼이 칼날에 쓰러진 이야기
전해져 지금 미담으로 삼네 진 꽃의 향기로움⁴⁴⁾

아동용 운문이므로 내용은 그리 길지 않지만, 그 파급력이 엄청났으리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운문을 다루는 수업현장에는 ‘백호대 이모리산에서 전사하는 회화’⁴⁵⁾가 종종 부교재로 활용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백호대라는 이름과 그 충성의 이미지는 수많은 소국민의 머릿속 한편에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을 것이다. 백

44) 인용은 和歌山県師範学校, 『国定小学讀本 唱歌集(高等科の部)』, 宮井平安堂, 1904, 23쪽.

45) 日本書籍株式会社, 『国語読方教法及教授案 高等少学科二学年後期』, 日本書籍株式会社, 1904, 139쪽.

호대 전사자를 둘러싼 기억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기 국가의 개입과 관련하여 또 하나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은 1911년에 창설된 통속교육조사위원회이다. 이것은 러일전쟁 이후의 국민 사상 선도, 직접적으로는 1910년의 대역사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학교교육과는 차별화된 사회교육을 추진한다는 취지하에 창설된 문부성 산하 기구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대중강연회 등을 통한 계몽활동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⁴⁶⁾ 위원회에서는 이 강연회를 위한 자료집도 발행하게 되는데, 백호대는 유력한 강연 재료의 하나로 예시되었다. “남자답게 할복하여 무사도의 본색을 발휘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천세에 남긴”⁴⁷⁾ 백호대 전사자에 대한 기억은 사회교육의 맥락에서도 환기되었다.⁴⁸⁾

이 같은 국가 개입의 동향에 호응하듯, 메이지 말기에 이르면 일본역사를 다루는 각종 선집에서 백호대 이야기는 단골메뉴가 된다.⁴⁹⁾ 상황이 이렇다 보니,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는 듯 백호대 대원들의 최후를 묘사하지 않고 생략하는 서술 태도조차 확인된다.⁵⁰⁾ 메이지 말기에 이르러 백호대 전사자를 둘러싼 기억은 아이즈 지역사회

46) 吉川正通, 「明治末期「通俗教育調査委員会」制度の一考察」, 『社会問題研究』 29(3), 1979 참조.

47) 通俗教育研究会 編, 『通俗教育講演資料』, 明誠館, 1911, 314쪽.

48) 통속교육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것은 활동사진이다. 일본 문화청에서 운영하는 일본영화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백호대를 다룬 영화는 1910, 1911년에 연이어 등장했다. 전자의 경우 일본 최초의 영화 스타로 일컬어지는 오노에 마쓰노스케(尾上松之助)가 주연했다고 기록되어 있다(일본영화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japanese-cinema-db.jp> 최종검색일: 2017.12.6). 구체적인 근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문부성에서 통속교육의 일환으로 백호대 활동사진 제작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9) 中川柳涯 編, 『ポケット歴史百話』, 日吉堂, 1910; 中野京雛 編, 『ポケットお伽噺大会』, 国華堂, 1910; 上田万年 解説, 『日本歴史画譚』, 文王閣, 1910; 佐々乃緑, 『歴史話百番 講話資料』, 文祥堂, 1911.

50) 西川三五郎 編, 『児童百話 学校家庭(正編)』, 文盛館, 1909, 8-9쪽.

를 훌쩍 뛰어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되려 하고 있었다.

IV.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백호대 전사자에 관한 메이지 시기의 텍스트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백호대 기념비 건립과 러일전쟁이 전환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90년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이 재현되면서 기억은 여러 갈래로 찢어졌다. 플롯이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뒤엉켰으며, 갖가지 고사는 또 다른 자잘한 변주들을 낳았다. 이에 연동하여 삽화도 처음에는 두 가지 묘사가 교차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백호대 전사자를 둘러싼 기억이 균열 일변도의 양상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러일전쟁에 즈음하여 일본 고유의 정신, 윤리의식으로서의 무사도 담론이 부상하자, 백호대 전사자는 무사도, 일본정신의 표상으로 자리매김되기 시작했다. 이에 연동하여 관련 삽화에서도 양복은 사라지고 전통 복장만 발견되었다.

이 같은 정형화의 움직임에 한층 박차를 가한 것은 국가의 개입이었다. 백호대 전사자 이야기는 국정교과서, 통속교육이라는 규격화되고 정제된 필터를 거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백호대 전사자를 둘러싼 기억의 지형도가 한층 매끄러워질 만한 여건은 이처럼 메이지시기에 마련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 이야기한 기억의 균열에는 애초에 일정한 한계가 설정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관직(官職)의 구도에서 백호대 전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노골적인 사례도 존재했다.

열여섯 무사의 안중에는 단지 그 번주만 보였을 뿐, 황실이 있음을 잊었다. 이에 몸은 진실된 충성을 위해 죽었지만 청사에 오명을 남겼다. 가엽고 딱하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순역을 그르친 죄이런가? 슬프도다.⁵¹⁾

백호대 전사자를 둘러싼 기억은 국민국가 차원의 역사인식문제와 맞물려 있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국정 국어교과서에 등장한 백호대가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향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이쇼 시기 이후의 상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17년 11월 15일

논문 심사일 : 2017년 12월 4일

게재 확정일 : 2017년 12월 17일

51) 山口県 林鶴堂, 「題白虎隊殉難之図」, 『穎才新誌』 892, 1894.

〈부록〉 백호대 전사자에 관한 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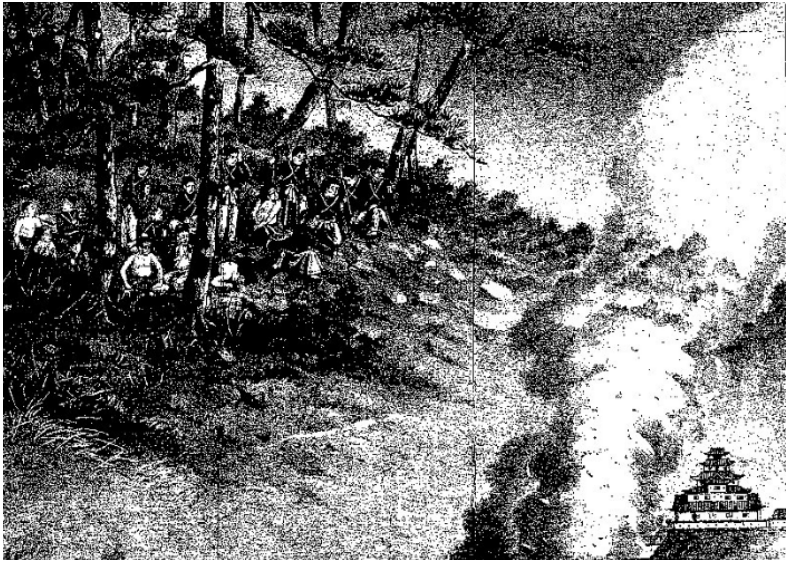
① 『評纂新休詩選』, 1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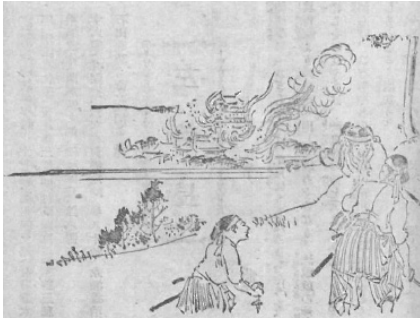
② 『繪入白虎隊勇士列伝』, 1890



③ 『家庭教育 小学生徒演説』, 1891



④ 『白虎隊事蹟』, 1894



⑤ 『少国民』 10(3), 1898

- ① 竹内隆信編, 『纂評 新体詩選』, 春陽堂 1886.
- ② 二瓶由民, 『繪入白虎隊勇士列伝』, 齋藤八四郎, 1890.
- ③ 虎林勇, 「白虎隊の勇氣」, 『家庭教育 小学生徒演説』, 花井卯助, 1891.
- ④ 中村謙, 『白虎隊事蹟』, 河井源蔵, 1894.
- ⑤ 「白虎隊」, 『少国民』 10(3), 1898.



⑥ 『絵入通俗西郷隆盛詳伝』,
1903



⑦ 『白虎隊士間瀬源七郎伝』,
1904



⑧ 『歴史修身談』,
1907



⑨ 『壯絶悲絶 白虎隊』, 1909

⑥ 村井弦齋・福良竹亭, 「第三十九 白虎隊の壮烈 十九少年自殺の事」, 『絵入通俗西郷隆盛詳伝』 第參編, 春陽堂, 1903.

⑦ 指月庵, 『白虎隊士間瀬源七郎伝』, 甲斐山書店, 1904.

⑧ 文友会, 『歴史修身談』, 文陽堂, 1907.

⑨ 高橋淡水, 『壯絶悲絶 白虎隊』, 磯部甲陽堂, 1909.

참고문헌

1. 자료

- 池内儀八, 『会津史』 卷九, 池内清治郎, 1897.
- 井野辺茂雄編, 『七十偉人』, 武田文永堂·中島辰文館, 1909.
- 上田万年解説, 『日本歴史画譚』, 文王閣, 1910.
- 小笠原勝修, 『続国史畧後編』 卷之五, 柏悦堂, 1875.
- 川崎三郎, 『戊辰戦史』 卷10, 博文館, 1894.
- 久保天隨編, 『古今武士道史譚』, 育成会, 1905.
- 酒井長吾, 「紀白虎隊事」, 『穎才新誌』 1024, 1897.
- 坂本忠一郎, 『西郷隆盛伝 第3編 江戸之巻』, 精華堂, 1909.
- 佐々乃緑, 『歴史話百番 講話資料』, 文祥堂, 1911.
- 佐瀬一郎編, 『飯盛山案内』, 万翠堂, 1908.
- 佐竹操編, 『薩摩琵琶四絃界(後)』, 岡本偉業館, 1909.
- 指月庵, 『白虎隊士間瀬源七郎伝』, 甲斐山書店, 1904.
- 瀬能寛三, 「題白虎隊戦死凶」, 『穎才新誌』 836, 1893.
- 高橋淡水, 『壮絶悲絶 白虎隊』, 磯部甲陽堂, 1909.
- 竹内隆信編, 『評纂新体詩選』, 春陽堂, 1886.
- 通俗教育研究会編, 『通俗教育講演資料』, 明誠館, 1911.
- 椿時中, 『小学国史紀事本末』, 龍雲堂, 1882.
- 坪谷善四郎, 「白虎隊の為に紀念碑を樹るの挙を聞く」, 『日本之少年』 2(13), 1890.
- 虎林勇, 「白虎隊の勇氣」, 『家庭教育 小学生徒演説』, 花井卯助, 1891.
- 中川柳涯編, 『ポケット歴史百話』, 日吉堂, 1910.
- 中野京雛編, 『ポケットお伽噺大会』, 国華堂, 1910.
- 中村謙, 『白虎隊事蹟』, 河井源藏, 1894.
- 西川三五郎編, 『児童百話 学校家庭(正編)』, 文盛館, 1909.
- 日本書籍株式会社, 『国語読方教法及教授案 高等少学科二学年後期』, 日本書籍株式会社, 1904.
- 林鶴堂, 「題白虎隊殉難之凶」, 『穎才新誌』 892, 1894.
- 「白虎隊」, 『少国民』 10(3), 1898.
- 廣阪生, 「吊白虎隊少年文」, 『穎才新誌』 691, 1890.
- 二瓶由民, 『絵入白虎隊勇士列伝』, 斎藤八四郎, 1890.

村井弦齋·福良竹亭, 「第百三十九 白虎隊の壮烈 十九少年自殺の事」, 『絵入通俗西郷隆盛詳伝』 第参編, 春陽堂, 1903.

八木富次, 「飯盛山白虎隊墓」, 『仁山智水帖』, 光村写真部, 1902.

和歌山県師範学校, 『国定小学読本 唱歌集(高等科の部)』, 宮井平安堂, 1904.

2. 연구서

정지영·이타가키 류타·이와사키 미노루 편, 『동아시아 기억의 장』, 삼인, 2015.

Hiraku Shimoda, *Lost and Found: Recovering Regional Identity in Imperial Japan*, Cambridge(Massachusetts)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Michael Rothberg, *Multidirectional memory: remembering the Holocaust in the age of decolonization*,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今井昭彦, 『反政府軍戦没者の慰霊』, 御茶の水書房, 2013.

佐伯真一, 『戦場の精神史: 武士道という幻影』, NHK出版, 2004.

田中悟, 『会津という神話』, ミネルヴァ書房, 2010.

田中彰, 『明治維新観の研究』, 北海道大学図書刊行会, 1987.

中道寿一, 『君はヒトラー・ユーゲントを見たか?』, 南窓社, 1999

中道寿一, 『ヒトラー・ユーゲントがやってきた』, 南窓社, 1991

星亮一, 『会津戦争全史』, 平凡社, 2005.

宮崎十三八, 『会津人の書く戊辰戦争』, 恒文社, 1993.

3. 연구논문

이세연, 「패자 아이즈의 적군 전사자 제사와 그 정치적 맥락들」, 『사람』 57, 2016.

阿部綾子, 「研究ノート 馬嶋瑞園の基礎的研究」, 『福島県立博物館紀要』 24, 2010.

今井昭彦, 「会津少年白虎隊士の殉難とその埋葬」, 『常民文化』 24, 1998.

今井昭彦, 「幕末における会津藩士の殉難とその埋葬」, 『人類にとって戦いととは 5 イデオロギーの文化装置』, 東洋書林, 2002.

今井昭彦, 「国家が祀らなかった戦死者」, 『新しい追悼使施設は必要か』, ぺりかん社, 2004.

今井昭彦, 「近代における賊軍戦死者の祭祀」, 『霊魂・慰霊・顕彰』, 錦正社, 2010.

川延安直, 「初期白虎隊自刃図について」, 『福島県立博物館紀要』 22, 2008.

川延安直, 「白虎隊の図像学」, 『東北学』 24, 2010.

- 川延安直, 「新出の白虎隊自刃図について」, 『福島県立博物館紀要』 25, 2011.
- 九頭見和夫, 「「ドイツ記念碑」と日新館の教育」, 『福島大学教育実践研究紀要』 13, 1988.
- 九頭見和夫, 「「イタリア記念碑」と「十五年戦争」下の会津の青少年教育」, 『福島大学教育実践研究紀要』 18, 1990.
- 後藤康二, 「白虎隊テキストについての覚書 1」, 『会津大学文化研究センター研究年報』 8, 2001.
- 後藤康二, 「白虎隊テキストについての覚書 2」, 『会津大学文化研究センター研究年報』 9, 2002.
- 中道寿一, 「ヒトラー・ユーゲントと日本」, 『日独関係史 III』, 東京大学出版会, 2008.
- 藤岡寛己, 「下位春吉とイタリア=ファシズム-ダンヌンツィオ, ムッソリーニ, 日本」, 『福岡国際大学紀要』 25, 2011.
- 吉川正通, 「明治末期「通俗教育調査委員会」制度の一考察」, 『社会問題研究』 29(3), 1979.
- 渡部昌二, 「白虎隊とファシズム」, 『歴史と地理教育』 687, 2005.

Abstract

Reconstructing Memories on *Byakkotai* in *Meiji* Japan

Se-Yun Lee

This paper is an attempt to analyze the texts about *Byakkotai*'s death from the viewpoint of reconstruction of memories. The monument of *Byakkotai* erected in 1890 and the Russo-Japanese War were turning points in the memories on *Byakkotai*. Since 1890, the end of *Byakkotai* began to be represented in various ways, the contents of which were not uniform. The memories on *Byakkotai* were fragmented as the representation repeated. However, as the discourse of *Bushido* was raised on the occasion of the Russo-Japanese War, the memories on *Byakkotai* began to have a certain shape. *Byakkotai* was established as a symbol of *Bushido* or the soul of Japan. This movement of stereotyping was accelerated by the intervention of the Nation State. The stories on *Byakkotai* were spread to the whole country in a standardized form through the textbooks and popular education controll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Key words

Byakkotai, Memories, Representation, Reconstruction, *Bushido*